

CJ제일제당 인권선언

제일제당은 기업 경영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다는 ‘사업보국’의 창업이념을 기반으로 본연의 창조적 경영활동을 통한 경제적 성과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기업 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실천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이에 제일제당은 글로벌 생활문화기업으로서 임직원은 물론, 회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유엔 인권 기본헌장(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과 유엔 인권위원회의 ‘기업과 인권에 대한 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 Ruggie Framework)’이 제시하고 있는 인권 원칙에 대하여 공개적 지지를 선언합니다.

세계인권선언에 대한 지지를 기반으로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국적, 인종, 성별, 학력 등의 이유로 인한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성, 외국인, 장애인 등 각자의 특성을 가진 다양한 구성원들이 고용, 승진, 보상, 퇴직 등의 인사제도 가운데 불이익 없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 할 것 입니다.

또한 CJ제일제당은 본 정책이 CJ제일제당뿐만 아니라 CJ제일제당의 자회사 및 비즈니스 파트너에게서도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CJ제일제당은 경영활동 중 발생 가능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참여 채널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임직원은 고충처리위원회 및 CJ Whistle을 통해, 협력중소기업은 동반성장 포탈, 상생 VOC 접수를 통해, 그리고 고객은 전화 및 문자 상담, 수화상담, 온라인 VOC(SNS 등)를 통해 의견을 받고 검토 후 시정 조치가 진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인권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 침해 사례를 목격하거나 혹은 직접 당하신 경우 해당의 채널이 어려우실 경우 다음 메일주소 (sustainability@cj.net)를 통해 언제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일제당은 언제나 인류애를 바탕으로 인간 그 자체를 존중하며 사회에 공헌하는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서 책임 의식을 발휘하여 인류사회의 풍요로운 미래에 공헌하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2017년 5월